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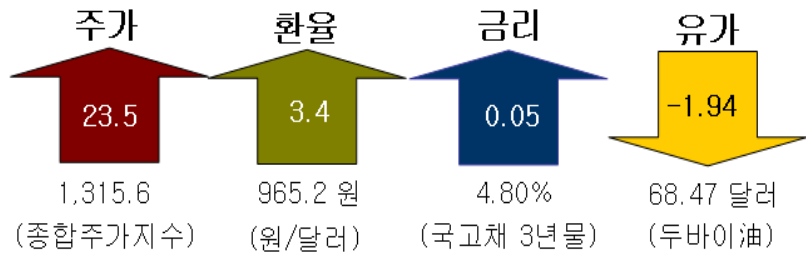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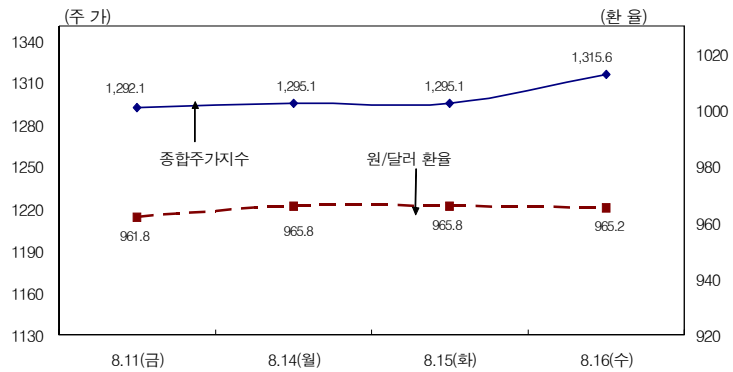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부동산 버블 해소를 위한 금융 정책 방향
- 영국 영란은행의 사례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8.11. ~ 8.16.)



차 례

- 주요 경제 현안 1
 - 부동산 버블 해소를 위한 금융 정책 방향
 - 영국 영란은행의 사례 1
- 주간 경제 동향 7
 - 실물 부문 : 원재료 물가, 두 자릿수 상승률 지속 7
 - 금융 부문 : 美 인플레 우려 완화로 국채 금리 대폭 하락 8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금융분석팀 : 박 덕 배 연구위원 (3669-4009, dbpark@hri.co.kr)

Executive Summary

□ 부동산 버블 해소를 위한 금융 정책 방향 - 영국 영란은행의 사례

세계 주요국들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응한 금융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유럽국가 중 유난히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은 선제적이며 신축적인 금리 정책을 통해 주택 가격 안정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의 주택 가격 상승 추세와 함께 영국의 중앙은행의 금융 정책 추진 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금융 정책을 보다 신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의 주택가격은 1996년부터 천천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상승하다가 2001년 이후부터는 저금리 속에서 다양한 경제적 원인에 의해 80% 이상 급등하였다. 첫째 주택 공급물량에 비해 주택 수요가 많았다. 영국 주택 수요자들은 높은 고용수준, 경제적 안정성 등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주택 구입에 열중하였다. 둘째 영국 국민들은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선호하였다. 영국 국민들은 닷컴(dot.com) 버블 붕괴 이후의 주식시장 침체로 주식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보험사 스캔들 이후 연금시스템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실물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셋째 영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었다. 풍부한 시중유동성, 낮은 이자율, 낮은 인플레이션을 등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주택구입자들은 높은 주택가격이 낮은 이자율과 공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원인 이외에 '투기자 사이에 형성된 버블심리'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객관적인 확률이나 기초적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주택 경기에 대한 과도한 낙관, 최근의 가격 정보, 타인의 행동 등에 의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소위 '묻지마 투자가'가 늘어나면서 투자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버블심리를 자극하였다. 즉, 대다수의 주택구입자들은 단순히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확신하여 구입을 서두르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즉각 선제적이며 신축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영란은행은 2001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자 2003년 11월 5일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한 것을 비롯해서 9개월 만에 다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였다. 금리정책의 시차효과 때문에 금리 인상 후에도 한동안 영국의 주택가격 상승 현상은 이어졌으나, 2004년말 이후 마침내 런던 지역과 고가의 주택은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또한 영란은행은 2005년 이후에는 런던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주택 버블 붕괴가 우려되자, 오히려 정책 금리를 인하시켜 버블 붕괴를 막으면서 영국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는 세금 정책 위주의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도 국내 부동산 버블 형성의 주원인 중의 하나가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인 점을 감안할 때, 최근의 금리 인상은 국내 부동산 버블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급속한 금리 인상은 오히려 경기 위축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 세금 강화 정책, 강력한 대출 규제 등과 함께 금리 인상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날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일거에 냉각되고, 이것이 장기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금리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통화당국의 금리 인상은 주변 경제 상황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단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 전체 차원에서 규제완화 등 획기적인 자본 시장 개혁으로 시중 부동산자금을 자본 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급랭의 충격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가계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 등을 활용하여 단기 대출구조를 장기화시키는 것도 매우 절실하다.

< 부동산 버블 해소를 위한 금융 정책 방향 - 영국 영란은행의 사례 >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주택가격도 급등하면서 버블이 형성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 들어 크게 떨어진 영국의 주택가격은 1998년부터 천천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상승하다가 2001년 이후 급등하기 시작함(2001~2005년 사이 약 80% 급등) - 영국의 경우 택지 및 건축 관련 규제가 심해 주택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유럽국가 중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음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부블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블 형성의 경제적인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금리 하에서의 풍부한 시중 유동성 - 주택 공급 물량 보다 많은 주택 수요 - 주식시장 침체와 연금시스템 불안에 따른 실물자산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 등 ❖ 한편 경제적 이유 외에 '투자자 사이에 형성된 버블 심리'도 주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경기에 대한 과도한 낙관, 최근의 가격 정보, 타인의 행동 등에 의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소위 '묻지마 투자가'가 늘어나면서 투자 리스크를 과소 평가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영란은행의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란은행은 주택버블 현상이 가시화되자 즉각 선제적 금리 정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11월부터 9개월 만에 5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상 (3.5%→4.75%) -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2004년 이후 고가의 주택과 런던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남 - 2005년에는 오히려 정책금리를 인하시켜 급격한 버블 붕괴를 막으면서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여지 마련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부블 정책예의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부동산 버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이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인 점을 감안할 때 금리 인상의 필요성 존재 ❖ 단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적이며 종합적인 금융 정책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강화 정책의 발효,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의 효과와 함께 금리 인상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날 경우 부동산 시장이 일거에 냉각되면서 장기 경기 침체도 연결될 가능성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상황을 보아가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신속적 금리 정책 추진 · 획기적인 자본시장 개혁으로 시중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경제활력을 유지시켜 부동산 시장의 급랭 충격을 최소화 ·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확대 등을 통해 단기 대출 구조의 장기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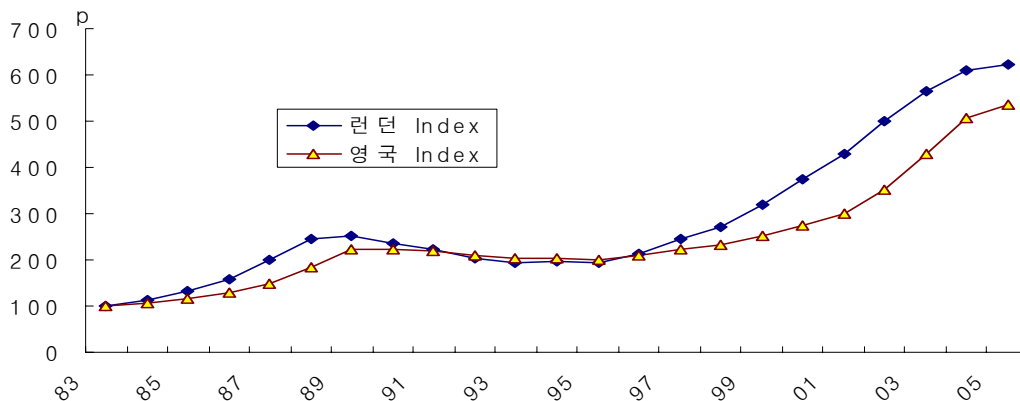
□ 부동산 버블 해소를 위한 금리 정책 - 영국 영란은행의 사례

1. 영국의 주택 버블 현황

○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주택가격도 급등하면서 버블이 형성되었음

- 90년 중반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유럽의 주택가격은 2000년대 들어 그 상승 속도가 크게 빨라짐
 - 세계적으로 주택 수요의 견실한 증가와 저금리 지속,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경제성장 지속, 주택시장 버블 붕괴 방지 등에 기인하고 있음
- 1990년대 크게 떨어진 영국의 주택가격은 1996년부터 천천히 제한된 지역에서 상승하다가 2001년 이후 급등하기 시작함
 - 영국의 주택 가격은 1980년대 후반 내내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으며, 경제적 번영에 힘입어 신규 주택과 새롭게 지방의회(Council) 임차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도 질적으로 상승하였음
 - 1990년대 들어 전 세계적인 불황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30%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은행과 주택조합(Building Society)에 의해 부동산(Property) 보전이 급증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負의 물적 재산 상태로 남음¹⁾
 - 1997년부터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한 주택가격은 2001년 이후 급등함 (2002년 17.4%, 2003년 22.4%, 2004년 18.3% 등 1997~2005년 142% 상승)
 - 영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평균 연간 소득대비 평균 주택가격 비율은 3.5인데 비해 2005년에는 6.0으로 상승

< 영국의 주택가격지수 추이 >



자료 : Halifax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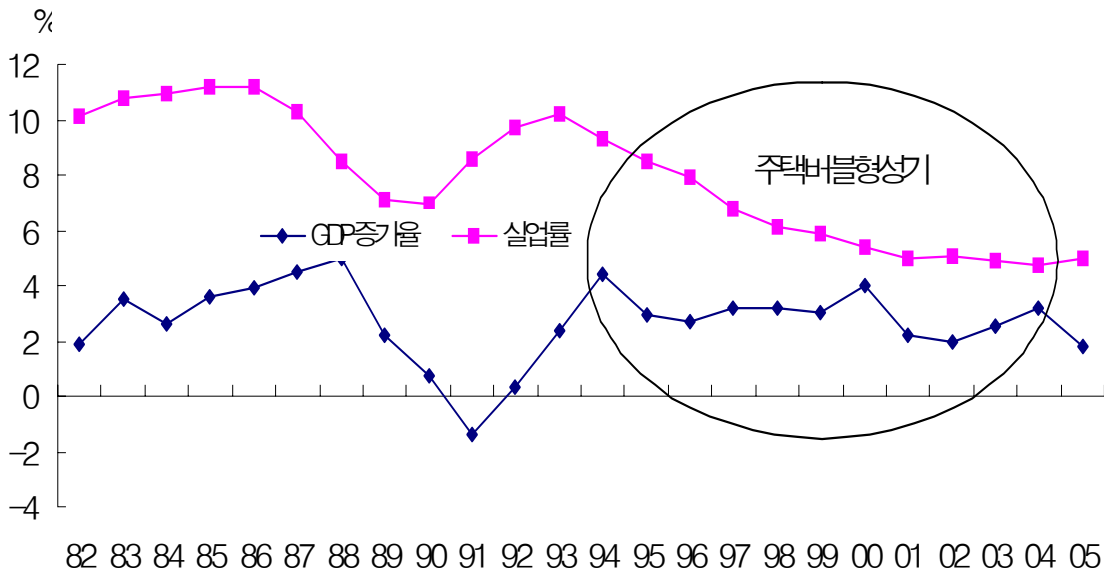
1) 영국 정부는 1988년 二重 모기지세금면세(Mortgage Tax Relief)의 폐지 의향을 사전 발표함으로써 이중 모기지 면세제도가 하나의 파트너 소득에만 적용될 수 있게 되자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집을 사기 위하여 한차례 주택가격이 급등한 후 하락세를 지속

2. 주택 버블 논의와 영란은행의 대응

○ 영국의 주택버블은 저금리 속에서 다양한 경제적 원인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견해와 투자자 사이에 버블 심리로 형성되었다는 견해가 공존함

- 영국 주택가격은 다양한 경제적인 원인에 의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높은 고용수준, 경제적 안정성 등 경제에 대한 대중적인 자신감을 바탕으로 주택구입을 증가
 - 인구지리학적 측면에서 주택 공급물량에 비해 주택 수요자가 많음
 - 닷컴(dot.com) 버블 붕괴 이후의 주식시장 침체로 주식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Equitable Life Scandal²⁾ 이후 연금시스템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실물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실물자산(Bricks and Mortar)에의 투자는 주식과 같은 투자수단보다 광범위하고 안전한 투자라는 믿음)

< 영국의 경제 지표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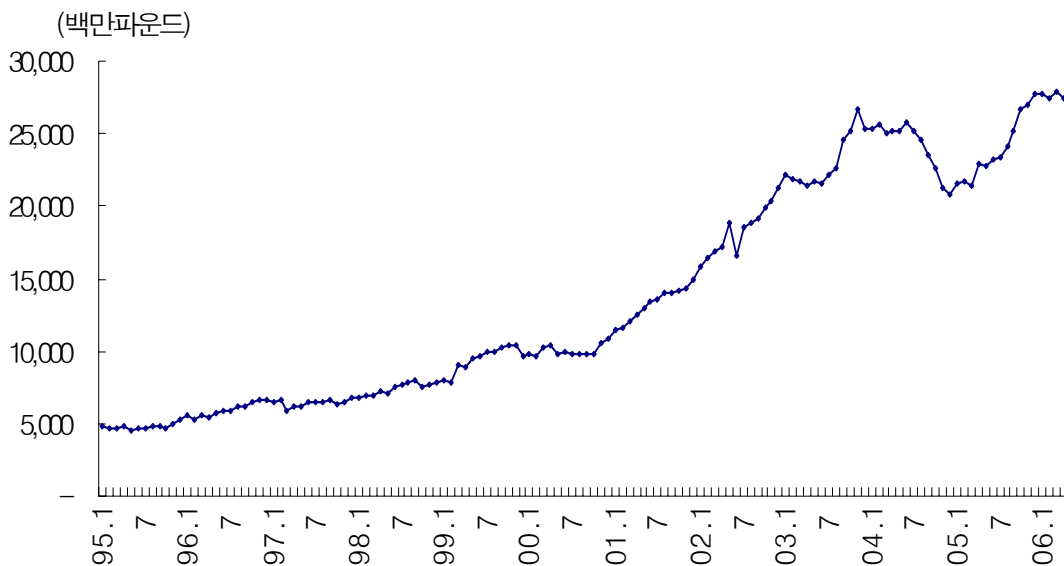


자료 : Bank of England.

2) Equitable Life Scandal은 1762년에 설립된 영국의 생명보험회사 Equitable Life가 2000년에 사실상 파산상태에 돌입하여, 가입자의 연금과 퇴직적립금을 깎은 사건으로서 영국 대중에게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

- 풍부한 시중유동성, 낮은 이자율(1990년 15%대였던 이자율이 2004년 4.5%로 하락), 특히 낮은 인플레이션을 등이 지속되면서 많은 주택구입자들은 높은 주택가격이 낮은 이자율과 공존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됨
 - 영국의 경우 택지 및 건축 관련 규제가 심해 주택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유럽국가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음
- 한편 영국의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 외에 '투기자 사이에 버블 심리가 주된 이유'라는 견해도 공존
-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객관적인 확률이나 기초적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과도한 낙관, 최근의 가격 정보, 타인의 행동 등에 의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소위 '묻지마 투자가'가 늘어나면서 투자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대다수의 주택구입자들은 단순히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더 오를 것으로 확신하여 구입을 서두르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경향을 나타냄

< 영국의 개인 및 주택관련 대출 총액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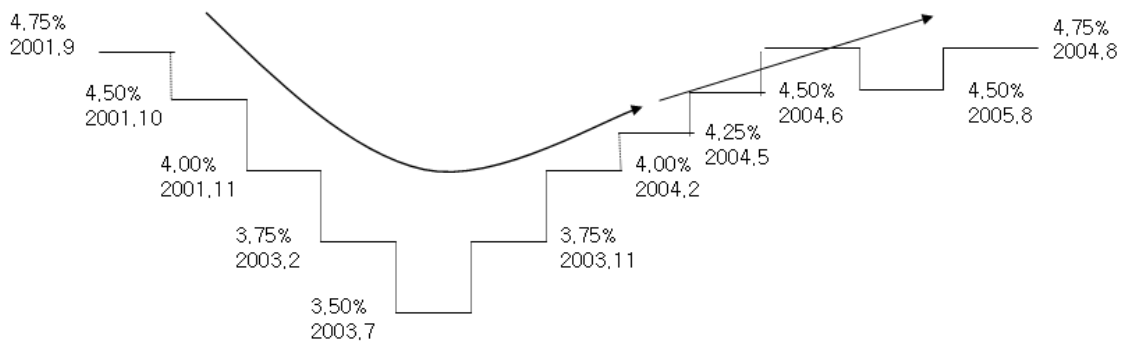


자료 : 영란은행.

○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주택버블 현상이 가시화되자 즉각 탄력적인 금리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을 진정시키면서 주택버블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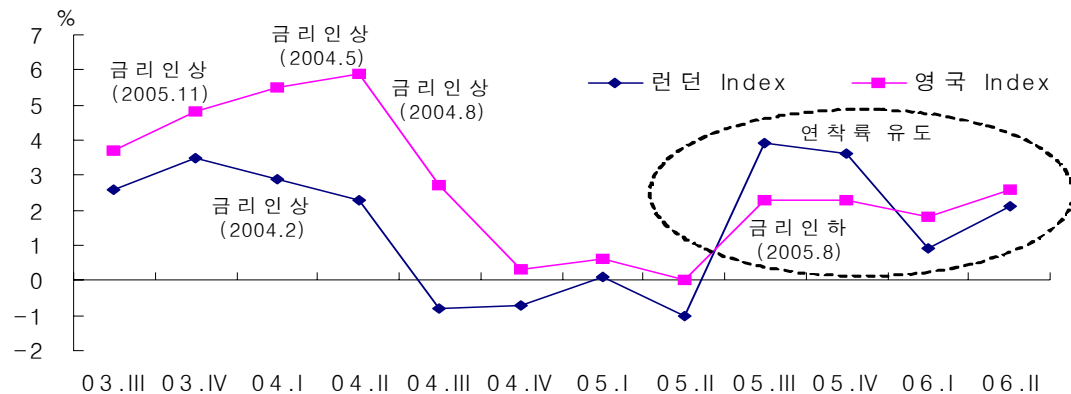
-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2003년 11월 5일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한 것을 비롯해서 9개월 만에 다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함 (3.5% → 4.75%)
 - 5차례의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영국의 주택가격 상승 현상은 이어졌으나, 2004년 이후 고가의 주택과 런던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었음
 - 영란은행은 주택시장 분위기를 과약,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금리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것을 고려)
 - 2005년 런던 지역의 주택가격 붕괴가 우려되면서 오히려 정책금리를 인하시켜 버블 붕괴를 막으면서 연착륙 유도를 노력 하고 있음

< 영란은행의 정책금리(Repo Rate) 추이 >



자료 : Bank of England

< 최근의 영국 주택지수 증가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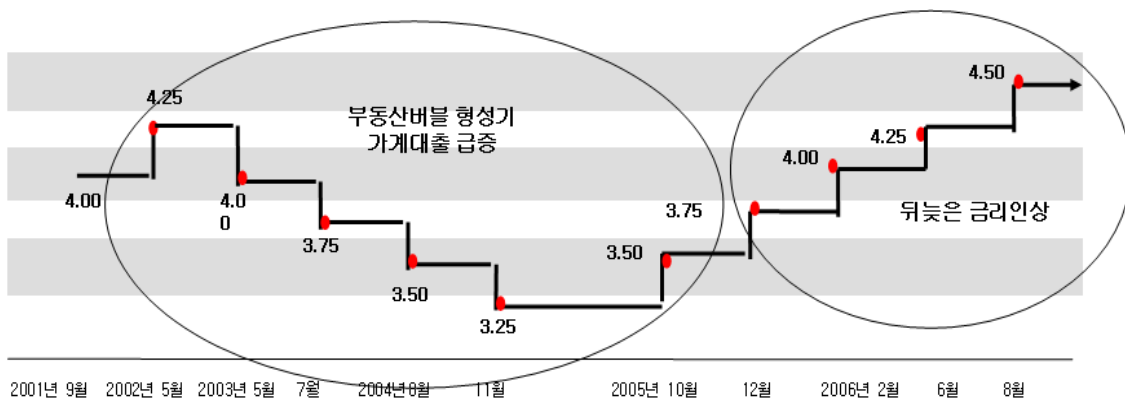


자료 : Halifax Bank

3. 국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사점

- 영국과 우리나라의 주택버블이 본격 형성된 원인이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통화당국의 금리정책에는 차이가 있음
 - 영란은행의 주택시장의 성공적인 연착륙 유도는 주택버블 현상이 가시화되자 즉각 주택시장 분위기를 파악,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2001년 이후부터 주택버블이 본격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원인은 저금리 기조에 의한 과잉유동성임을 파악하면서 탄력적인 금리정책을 수행함
 - 금리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것도 고려함
 - 2005년 들어 오히려 정책금리를 인하시켜 런던지역의 버블 붕괴를 막으면서 연착륙 유도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함
 -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부동산 버블의 원인 가운데 과잉유동성 문제가 있어 최근의 금리 인상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유효한 정책 방향으로 생각됨
 - 국내에서 부동산 버블이 본격 형성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 최근까지 통화당국은 저금리 정책을 지속함³⁾

<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 수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3) 장단기 금리 사이의 연결고리 단절,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의 선순환 구조 붕괴 등으로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금리인하 정책의 효과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을 위한 금리인하 여지마저 상실함

- 단, 영란은행의 신속적인 금융정책 사례는 최근 금리인상을 본격 단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과거 일본이 경험한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정책당국의 세심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현재의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압력과 정책당국의 강력한 행정규제 등 하락압력이 세력 겨누기를 하고 있는 상황임
 - 풍부한 시중 유동성, 은행권의 가계대출 압력 지속, 특정 지역에 대한 실수요, 강북 및 신도시 개발, 행정중심도시·기업도시 등 지역개발 등이 상승압력 요인으로 작용
 - 8.31, 3.30 대책 등 정부의 안정대책, 당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창구지도, 세계적인 금리상승 압력과 콜금리 인상 등이 하락압력 요인으로 작용
- 금리인상, 세금강화 정책의 발효, 강력한 대출규제 등의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날 경우 부동산시장이 일거에 냉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일본이 취한 “부동산관련 대출 총량 규제”처럼 강력한 조치가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급락을 초래할 수 있음
 - 금리정책의 효과가 일정 기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최근의 연이은 금리인상 단행의 효과는 나중에 나타날 수 있음
 -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단행된 영란은행의 금리인상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상황도 고려할 때 급격한 금리인상은 자칫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음
- 향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금리인상 자제, 자금순환 구조 확립, 가계의 단기대출 구조의 장기화 등이 필요함
 - 이미 금리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통화당국의 금리 인상은 이제 주변 경제상황을 보면서 단행할 필요가 있음
 -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규제완화 등 획기적인 자본시장 개혁으로 시중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유지시켜 부동산시장의 급랭 충격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 한편 가계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 등을 활용하여 단기 대출구조를 장기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함
 - 중장기적으로 앞으로의 통화당국 금리정책이 소신 있게 펼쳐지도록 정치적 논리 및 정부 간섭 등에서 벗어나야 할 것임

박덕배 연구위원(3669-4009, dbpark@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원재료 물가, 두 자릿수 상승률 지속

○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생산재(원재료 및 중간재) 물가 지수가 전년동월대비 6.9% 상승함

원재료 물가 지수, 2005년 5월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 지속 - 원재료는 원유, 銅 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5.3% 급등하였으며, 중간재도 석유 화학 제품 오름세가 지속되어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함

- 한편 내수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아, 재화 부문(서비스 제외)의 종합적인 인플레이션 측정 지표인 최종재 물가는 0.3% 증가에 그침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감내 정도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 - 최종재 물가의 상승세가 높지 않은 것은 경기 부진에 따르는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나, 하반기에는 기업들이 비용 상승분을 최종재 가격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아 물가 불안이 우려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2006					
			연간	2/4	3/4	4/4	1/4	2/4	6월	7월	
경기	수요	경제성장률	4.7	4.0	3.2(1.4)	4.5(1.6)	5.3(1.6)	6.1(1.2)	5.3(0.8)	-	-
		소내재판매	-0.8	3.9	3.4	4.4	6.8	5.0	5.4	5.2	-
		설비투자추계	1.4	3.2	1.4	1.1	7.0	4.3	4.2	2.9	-
		건설수주	-3.9	9.5	38.5	15.8	-17.9	-9.7	-14.1	-7.7	-
	공급	수출	31.0	12.0	9.0	15.4	11.4	10.6	17.1	18.6	12.4
		산업생산	10.2	6.3	3.5	7.1	10.3	12.0	10.9	10.9	-
		취업지수(만명)	2,256	2,286	2,313	2,303	2,303	2,258	2,341	2,350	2,345
		실업률(%)	3.7	3.7	3.7	3.6	3.5	3.9	3.4	3.4	3.4
대외 거래	수입	25.5	16.4	15.2	21.1	14.6	19.0	19.8	21.9	18.4	
	경상수지(억\$)	282	166	26	27	54	-11	9	11	-	
물가	무역수지(억\$)	294	232	60	49	61	18	55	22	7	
	소내재물가	3.6	3.2	3.0	2.3	2.5	2.3	2.4	2.6	2.3	
	생활물가	4.9	4.1	4.5	3.4	3.4	3.2	3.0	3.4	2.9	
	생산재	11.4	3.9	3.5	3.7	3.7	5.2	6.1	7.7	6.9	
	최종재	2.8	0.3	0.2	0.3	0.9	0.3	0.3	0.9	0.3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이며,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美 인플레이 우려 완화로 국채 금리 대폭 하락

○ (해외 금융 시장) 美 인플레이션 지수 예상치 하회로 국채 금리 하락

- 美 경제지표 부진
예상 등으로 달러화
는 글로벌 약세 시
현
- 금리: 미 7월 근원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하회함에 따라 금리는 대폭 하락 (美 국채 10년물 : 4.97 → 4.86%)
 - 환율: 엔/달러와 달러/유로는 미 경제지표 부진 전망과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따른 금리격차 축소 기대로 강세 시현 (\$/€ : 1.2721→1.2839, ¥/\$: 116.32→115.86)

○ (국내 금융 시장) 일부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로 주가 상승

- 美 물가지수 상승률
의 예상치 하회로 인
플레이션 우려 감소
하면서 국고채 금리
보합 시현
- 주가: 전주말 美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수선물 순매수에 따라 프로그램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일부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상승 (1,304.31→1,315.61)
 - 금리: 전주 급락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도 불구하고, 美 7월 근원 소비자 물가 및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의 예상치 하회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하면서 보합세 시현 (국고채 3년 수익률, 4.80→4.80%)
 - 환율: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역외 거래자의 달러화 매도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 결제자금 수요증가 등으로 강보합 시현 (957.90→959.5)

○ (전망) 유가 상승 지속과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원/달러 약세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4	2005			2006			
			2/4	3/4	4/4	1/4	2/4	8.11	8.16
국내	거래소 주가	895.9	1,008.2	1,221.0	1,379.4	1,359.6	1,295.15	1,304.31	1,315.61
	국고채3년(%)	3.28	4.02	4.60	5.08	4.93	4.92	4.80	4.80
	원/달러	1,035.1	1,025.4	1,041.1	1,011.6	971.6	948.9	961.8	965.2
해외	DOW	10,783	10,275	10,569	10,718	11,109	11,150	11,088	11,327
	Nikkei	11,489	11,584	13,574	16,111	17,060	15,505	15,565	16,071
	미국채10년(%)	4.22	3.91	4.32	4.39	4.85	5.14	4.97	4.86
	일본채10년(%)	1.44	1.17	1.48	1.48	1.78	1.93	1.84	1.84
	달러/유로	1.3556	1.2108	1.2026	1.1849	1.2118	1.2790	1.2721	1.2839
	엔/달러	102.56	110.92	113.51	117.75	117.78	114.42	116.32	115.86
	두바이(\$/배럴)	33.11	52.09	56.32	53.19	59.16	67.17	70.41	68.47